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목회장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연중 제 28 주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대영광송>

[제 1독서] 이사 25,6-10ㄱ

[화 답 송] 시편 23(22),1-3ㄱ.3나ㄴ-4.5.6(◎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필리 4,12-14.19-20

[복음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22,1-14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잔치국수의 추억

우리 말의 고유한 표현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우 흥미롭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국수를 먹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결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긴 면발이 장수를 상징하기에 잔치의 주인공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혼인이나 환갑 같은 잔칫날에 국수를 먹는 것은 꽤 오래된 전통입니다. 반면에 국수가 저렴하고 간단해서 잔치 음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통념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밀가루가 매우 귀했기에 잔칫날 손님들에게 특별하고 귀한 음식으로 국수를 만들어 대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 봄가을이 되면 성당에서는 주말마다 혼배미사와 잔치가 거행되곤 했습니다. 뒷마당 어딘가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성모회원 자매들이 익숙한 손길로 잔치국수를 삶았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모든 본당이 같은 상황이었기에 여러 성당의 잔치국수가 비교 평가되었고, 우리 성당 국수 맛이 최고라는,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미사 전례를 챙기고 성당 정리와 청소까지 마친 후에 많이 허기진 상태에서 먹던 그 잔치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혼인 잔치와 인연이 많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첫 표징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서도 자주 혼인 잔치를 언

급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혼인 잔치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누구나 알고 있는 혼인 잔치의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실 영원한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차려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적으로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지낸 시월의 주일, 여러 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이 변화된 풍속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혼인 잔치의 풍성함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는 고사하고 결혼식마저 온라인으로 거행한다는 말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혼인은 ‘성사’이고 ‘인륜지대사’이니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제는 추억 속에서나 맛볼 수 있는 ‘진짜’ 잔치국수가 그리울 뿐입니다.

신호철 토마스 신부
가톨릭회관 관장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10/11(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나수영 가정	주마리아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황미주 생일	김크리스티나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10/13(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생	이아가다(윤자)	이베로니카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10/15(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이아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생	전데레사(숙희)	이베로니카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10/16(금)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10/17(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고야고보(명재)1주기	임클라라(은석)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생	황말찌나(정숙)	김바오로(아룡)		연	이루이스/문엘리자벳	전데레사(윤자)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제랄도(10/13) : 김세록

* 말가리다(10/16) : 김미숙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357
- < 교무금 > \$5,580
 심데레사(10-12) 주정희(10-12) 이선희(8-12) 이범준(10)
 이명국(10) 천종욱(10) 김원덕(10) 임윤택(10) 김영길(9-10)
 구천남(7-12/19, 1-12) 박종영(10-12) 윤성진(8-9) 김영자(10)
 구창희(4-8)
- < 성소후원금 > \$ 160
 이선희(8-12) 임윤택(10)
- < Bishop's Appeal >
 이선희(8-12)
- < 감사헌금 > -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벨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현국 요한사도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토요일 오전 9시 30분/목요일 저녁 8시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p> <p>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p> <p>☎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p> <p>☎(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p>☎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 #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p> <p>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p> <p>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p> <p>(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p> <p>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